제315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4월19일(금)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마.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 F1조직위원회
   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 2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마.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 F1조직위원회
   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국회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회의 때 출석하지 못하셨던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권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출석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특별히 이 분야에 뭐 잘 아는 거는 없지만 제가 IT 쪽으로 하니까 이쪽에도 그 분야가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잘 모시면서 국제경기대회가 우리 한국 새로운 성장동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은 최고위원 출마 관계로 오늘 출석치 못해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장님들의 회의 불출석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정의화·강운태 공동위원장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이시종 위원장님, F1조직위원회 박준영 위원장님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본과 같은 이유로 오늘 회의에 이석 또는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사 하는 사전의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1.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마.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 F1조직위원회

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시11분)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와 7개의 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을 비롯한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진선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장님 정말 우리 정치계의 원로이시기도 하고 대선배이시기도 하고 장관도 맡으셨고 지사님도 맡으셨고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조직위원회를 맡아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구성을 보면 지난해 특위 때와 비교해서 여야 각각 4명 정도씩 위원님들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특위 때 이미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위가 새로 구성되었고 또 새로 우리 특위 위원님이 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경기대회는 유치하기도 어렵지만 유치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하에 경기를 치렀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호응이 없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 대회는 실패한 대회로서 국가적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어렵게 유치한 국제경기대회가 실패한 대회가 아닌 성공한 대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대회조직위원회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그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문체부를 비롯한 7개 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님 인사말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처음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최근 발생한 보스턴마라톤대회의 테러 사태를 거울삼아 대회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구 구성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문화·이주민 자원봉사자 참여 등을 통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170여 개국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인들이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은 분야별 유망 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훈련시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특구 지정을 통해 개최 지역이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주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국제스포츠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경기대회 개최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노태강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노태강입니다.

지금부터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제경기대회 그간의 주요성과 및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은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곧이어 조직위원회별로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경기대회 일반현황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고 3쪽의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은 그간의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대회가 유치될 때마다 한시적인 대회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적인 낭비를 개선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대회로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지원대회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조직위원장은 대회 평가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문체부장관은 국회에 대회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국제경기대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106개국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는 전 국가적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대 대회보다 진일보한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페셜올림픽대회 사상 최초로 글로벌 개발 서밋 및 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저개발·동계대회 미참가국과 지적장애인을 초청하는 등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전남도에서 경주장을 인수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개최권을 인수하는 등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는 대회 운영의 안정적 체계를 마련하였고 3년 연속 대회 개최를 통해 국내 모터스포츠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2018년도에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사격연맹 총회에서 우리나라 창원으로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시에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개최국 정부 보증을 통해 대회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9일 스페인에서 개최지가 최종 선정됩니다.

보고자료 5~8쪽은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및 준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잠시 후 조직위별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추진현황입니다.

대회지원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대회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개최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해 올림픽특구 지정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안)에 대한 대회지원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대회 운영을 위해 성공개최 5대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올림픽 운영 준비를 위해 해외 컨설턴트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2017년 프레대회를 위해 2016년까지 환경·선수·관람객을 고려한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문체부 차관이 단장인 특구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특구종합계획은 2013년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며 올림픽 이후에도 개최도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망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7개 종목 170여 명에 대해서 2018평창올림픽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상종목 전용 미니선수촌 운영, 빙상종목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연중 운영 등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경기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각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문체부 2차관이 직접 대회 시설 및 운영 준비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스턴마라톤대회 테러를 계기로 금년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 및 해외 참가 국제대회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협의도 어제 관계부처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다음 달부터 경기장 등을 개·보수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댄스스포츠대회를 통해 운영 능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탄금호는 2004년 전국체전, 2007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조정예선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오는 5월 대통령기 대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 운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는 오는 10월 제4회 대회가 개최되며 스포츠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융·복합된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문체부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설 경기장 16개소는 현재 평균 공정률이 57% 이상이고 서구 주경기장은 현재 KDI 타당성재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행사 계획 및 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올 8월까지 수립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지난 1월 경기 종목을 확정하였고 2월 슬로건을 제정하였으며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개발하여 5월에 선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신설 경기장 건설 및 기존 경기장 개·보수를 추진하고 선수촌은 아파트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학교 운영계획 및 장소별 현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9쪽, 대회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마라톤대회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와 해외 출전대회 선수단 등의 대테러·안전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는 대회 개최권의 F1조직위원회 인수에 따라 대회준비·운영체제 개편을 위해 F1대회지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탄금호 전국조정대회 등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프레대회로 개최되는 2013년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유엔과

조직위 간 스포츠 교류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대회 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개최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올림픽특구 지정을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국제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존경하는 김재윤 지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구성된 지원특위 위원으로 다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평소 평창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특위에 새로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와 함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신속히 조치해 주신 덕분에 대회 준비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었고 대회 인프라의 설계와 착공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나하나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회 준비의 근간이 되는 대회 기본계획과 마케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금년 1월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방한하여 마케팅 플랜 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입지와 관련해서는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리가 잘 되어 신축되는 6개 경기장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망은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지난해 6월 착공되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정부, 강원도 시·군에서 소관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회 상징물인 엠블럼 개발을 완료하였고 문화·홍보·경기 분야 등 나머지 분야도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의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동계올림픽 준비를 본궤도에 올리는 것이 저희 조직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우선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난해 수립한 대회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절대공기가 필요한 경기장·교통망·선수촌·미디어촌 등 대회 관련 시설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와 강원도, 개최도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도 다음 달 3일 서울과 평창에서 엠블럼 선포식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올림픽 준비, 경기 운영요원 양성, 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림픽대회까지는 횟수로 5년이 남았지만 프레대회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준비기간이 3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습이 있을 수 없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는 아주 촉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회관련시설의 건설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국비가 지원되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될 수 있게 특별법을 보완하는 등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지원특위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고 한편으로는 스포츠·ICT·문화·환경·녹색산업 등 최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더 소상히 알고 계시

는 문동후 사무총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동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문동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개관, 일반현황,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상황,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23회 대회고 장애인올림픽대회는 12회 대회로서 대회 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그리고 장애인대회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설상경기는 평창의 알펜시아와 용평·보광 그리고 정선의 중봉, 그리고 빙상경기의 경우에는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 규모는 100개 국에서 선수·임원, 올림픽 패밀리 그리고 보도진 등 약 2만 600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경기 종목은 소치 올림픽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7개 경기에 15개 종목, 98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대회의 경우 5경기, 5종목, 72 세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저희는 아시아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지속가능한 유산을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대회 목표는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그리고 경제올림픽을 실현하는 데 두고 단계별로 올해까지를 기반 조성 단계, 2014년부터 16년까지를 본격 가동 단계, 2017년과 18년을 대회 개최와 청산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중점을 두어 대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올림픽 예산현황입니다.

올림픽 예산은 조직위원회 예산과 정부의, 그러니까 국가예산 그리고 민자 투자에 의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 예산은 1조 7600억 원으로 그 구성은 IOC보조금 6000억, 로컬스폰서 6000억, 입장권 2400억, 기타 3171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 예산 2조 9737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6900억, 접근교통망사업에 4700억 그리고 대회 관련 시설—선수촌, 미디어촌, IBC·MPC—은 민자에 의하여 1조 7900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490억 원으로 그 예산은 주로 마케팅활동 전개, 문화 및 홍보활동 추진, IT기반 및 시설·환경 등 대회 준비 추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상황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주셨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여 대회 준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 마무리했고, 경기장 및 대회 관련 시설 입지 조정을 완료했고, 그리고 대회 관련 주요 인프라의 건설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대회 상징물을 개발하고 있고, IO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5쪽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정부·강원도·유관단체와 같이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IOC에 제출할 분야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회 주요 고객별 운영계획을 올해 8월까지 완성하고 그리고 대회 업무분야별 운영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완성하여 IOC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영향연구 역시 앞으로 2013년,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8년 이후, 4회에 걸쳐서 영향을 평가하여 IOC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대회 인프라 건설입니다.

경기장은 총 13개 중 기존 경기장을 7개 활용하고 그리고 신설 경기장 6개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0억에 해당이 되고, 올해 678억을 확보하여 현재 단계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2014년 초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접근도로망의 확충을 위해서 철도·국도 등 간

선도로망사업은 정부 주도로 그리고 순환교통망—지방도나 군도—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 사업에 총 4748억 원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525억이 책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 관련 시설 확보에 관해서는 선수촌, 미디어촌, IBC·MPC, 개·폐회식장—올림픽주스타디움이 되겠습니다—, 올림픽타운, 급수시설 등에 총 1조 7900억 정도의 민자가 유치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민자 자체의 유치가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자 유치 확정 부분, 건설주체 추진 부분 등을 검토하여 어쨌든 2017년 말까지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사무총장님, 이미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의사항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동후 알겠습니다.

9쪽,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장과 교통 인프라에 필요한 필수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대회 관련 건설 예산 중에 일부 국고가 지원되는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주경기장, IBC·MPC, 급수시설 그리고 올림픽타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른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75%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특별법 중 일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특구의 사방사업 분담금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여러 가지 부담금들이 아직 면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올림픽 구현을 위하여 재원 조성을 위한 근거 그리고 지방채 국가 인수를 위한 근거 그리고 올림픽특구 내 시설의 세금감면 대상을 지방공사도 포함을 하셔서 강원개발공사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 및 콘도의 분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조직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인사말씀까지 듣고 이경옥 차관의 인사와 또 우리의 현안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실은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이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시부터 있지만 특별히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옥 차관의 인사와, 또 위원님들이 이경옥 차관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 때문에 일부러 오셨기 때문에, 3시까지는 또 이석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경옥 차관님의 인사 잠깐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히 이경옥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무적으로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각별한 협조를 해 주신다는 뜻에서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차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앉아서 그냥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요.

제가 하여야 할 역할은, 우리의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해야 할 역할은 우리 광고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에 지원해서 잘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현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익 배분 비율을 국제행사 쪽에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경기대회인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하고 세계물포럼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 미션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제대회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영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도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한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필요한 위원님들은 이경옥 차관께 먼저 질의해 주시면 차관의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성 위원님, 이경옥 차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위원입니다.

안행부 차관님,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수익의 배정 대상을 아까 얼핏 언급하시던데 2015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거기에도 좀 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지원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보고서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

언제 이렇게……

보고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할 때는 뺐는데……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문경시에서 굉장히 큰 현안으로 해서 시로부터 건의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뿌려 놓은 보고서에는 없어 가지고, 최신 것 뿌려 놓으면 저도 지적을 미리 안 할 텐데, 어쨌든 그것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이한성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특위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래서 아마 차관님도 포함해서 잘 지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이 국제경기특위는 작년에도 있다가 올해 다시 또 구성되어서 지금 열리는데, 작년에 문경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빠졌네요, 이상하게. 지원해 드리고요.

인천 남동을 출신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2차관님,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인사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미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가 좀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익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아까 인사말로 대신하고, 다른 게 아니라 국제경기대회가 애초에 상정했을 때보다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배분 비율도 상향되어서 지원되어야 충실한 국제경기대회가 열리고 또 그것을 유치한 취지에 맞게 국위선양이라든가 국민통합이라든가 사회발전 이런 게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안행부에서 시행령 개정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배분 비율에 대해서.

이 비율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그게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달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금년 10월부터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서 저희는 그 비율로 가는 걸로 일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종전 배분 내용을 보면 문화부 국제경기대회 지원이 50%고 여수엑스포 및 자연총회 등 국제행사 20%, 안행부—그 당시 행안부지요—30%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여수엑스포는 끝났고 그런 자연총회 등에 지원됐던 20% 정도는 현재 국제경기대회도 숫자가 늘어났

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분 비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협의사항이 있긴 한데 보니까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잘 활용하셔 갖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제경기대회 준비하다 보면 애초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 대회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치러 보자는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이런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배분비율 요청이니까요 관련 부서에서 잘 좀…… 저희들의 얘기를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안행부 차관님,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윤관석 위원님하고 또 이한성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바로 옥외광고물 광고자원을 가지고 문화부하고 안행부가 배분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데 올 9월 달까지는 국제경기대회에 65% 지원하고 그리고 안행부가 지자체에 35%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10월 달부터 국제대회 지원 비율을 50%로 줄인 이유가, 여기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1년 1월 달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그 비율을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50 대 50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보니까 7개 국제대회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어저께인가 결정이 났다면서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김기선 위원 국제경기대회에 지원해 주는 65%의 비율을 50%로 올 10월 달부터 축소시키는 것이 어제 결정이 났다면서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결정은요 아까 말씀대로 2011년 1월 달에 조정 합의하면서 2호2항에서 50 대 50으로, '2013년 10월부터 수익금 배분은 안전행정부 50%, 문화체육관광부 50%로 한다'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 비율이 2011년도에 합의가 된 겁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서 나오는 예산이 약 300억 규모고, 15%라고 해 봐야 약 45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

○김기선 위원 크지 않은 부분 가지고, 지금 국제경기대회 유치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충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안행부가……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억 가지고 부처 간에 이견을 보이고 '우리가 써야 되겠다' '우리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65% 이렇게 지원을 해 가니까 그대로 해서 국제경기대회 사기를 좀 살려 주는 의미에서 이것은 그대로 해 주는 방향으로 안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실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국내 상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국민적인 불안감이 더한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바로 엊그제 있었던 미국의 보스턴 테러 사건, 또 테러인지 단순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텍사스의 폭발 사고, 또 여러 가지 우편물에 독극물 배달 케이스 등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도 좀 어수선한 게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입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저희들이 그러한 준비도 하고 사전 대비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또 예방적으로 근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처 명칭도 안전행정부로 바꿨고요. 또 저희 내부 조직에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아주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뮌헨올림픽 참사 그것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지만 선수를 비롯한 전체적인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올림픽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100개국으로부터 약 2만 6000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테러 관련된 예방 및 비상 대응체제가 철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필요하다면 국방부하고 협조해서 군경 간에 긴밀한 유기적인 대응체제가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경기대회 대테러 안전대책 점검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해 주시고 대외비 사항이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그것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경찰특공대 훈련하는 매스컴의 방송을 제가 직접 한번 방영하던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사고 나는 것은, 일본에서 쓰나미가 100년에 한 번 온다는데 100년에 한 번 오는 순간에 대참사가 있는 것처럼 만에 하나의 경우에도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국내외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서 평화로운 평상시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행정부가 앞장서서 문화관광부와 함께 좀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부 장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제대회가 진행되는 게 세 군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다른 데야 봤고, 우리 F1대회, 국제자동차연맹 F1대회와 관련, 포뮬러1 대회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KAVO가 철수를 했다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그리고 전남도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그렇다면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경기 내용이야 같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금년이 4회째인데 세 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했다는 건 장관님도 이의 보고를 받아서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백재현 위원 KAVO 체제가 아니라 전남도가 주관이 되는 체제가 된다면 책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 책임도? 지금까지는 KAVO 체제기 때문에 전부 다 정부가 좀 더 등한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분이 좀 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주체가 전남도로 바뀐 이상 이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더 관여를 하고 책임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뭐 원칙은 동의합니다.

○백재현 위원 실지 그 대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갈수록 인원도 늘어나고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정부의 작년 예·결산에서도 그와 관련된 일이 문제로 많이 지적됐어요. 저도 작년에 예·결산 위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금년이 4회 대회인데 4회 대회부터는 전남도가 주관하고 있는 이상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자꾸 민간인과 관련된, 또 상업성이 좀 있다는 취지로 등한시하고 좀 더 관심 밖으로 두려고 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기조였다면 금년부터는 좀 더 달라진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노력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안행부 차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비율을 조정하겠다는데 여기 대상에 F1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F1은 아직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법적, 해당 관련 경기의 법에 광고 수익금을 수입으로 잡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근거 규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F1 대회와 관련해서는 광고물과 거기서 수입이 안 잡힙니까, 거의?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예, 수입 항목으로 저희 기금으로 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까지는 KAVO 체제하에서 그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광고 수입을 잡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도 고쳐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잘 아시다시피 그 대회 자체가 유치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받고 유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부터 우선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지 근본적인 지원 강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법적 내용을 갖지를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당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 세 번에 걸쳐서 했던 것과 관련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KAVO 체제가 없어지고 전남도가 맡아서 하는 상황인데 바꿔야지요, 법체계도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문체부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 제 얘기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금년도 KAVO 체제가 계속 유지를 한다면 일괄해서 갈 수가 있지만 그런 체제가 무너지고 바뀐 입장에서는 입장을 좀 바꿔서 문체부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안행부도 해야 될 역할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 총괄을 쥐고 있는데 전남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안행부가 않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안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을 촉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이 3시까지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께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가 있는데 혹시 다른 분은 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서 이경옥 차관님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차관님, 오늘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의 체육 국제대회에 지원을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주 감사드립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너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50%가 평창 인천으로 되고 20%가 여수엑스포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가 30%로 그렇게 MOU가 됐던 건데 그것을 일단 제가 볼 때 최소한 70%, 여수엑스포에 들어갔던 20%가 여수가 끝났으니까 그 20% 정도

는 최소한 국제대회 유치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느 지자체가 유치는 했지만 이게 다 국가적인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행부가 하여튼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정말 잘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조금 양보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정부가 떠안는 부담도 적고 또 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감사하지만 최소한의 비율 70%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차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님은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의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특위의 김재윤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에 대한 열정적인 우리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2007년 대회 유치와 함께 설립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회는 45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국에서 약 2만 명이 참가할 것이 예상되며 20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200만 명의 관람객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프레이벤트로 열리는 금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의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역시 4400명이 참가할 것입니다. 이들 대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일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로서는 사상 처음 갖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도서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 이상기류가 대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부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대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범국가적인 축복 속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대회 개관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36개 종목에 45개국에서 2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의 테스트 이벤트 프레 대회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동안 실내아시아경기대회와 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나뉘어서 개최되던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첫 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회 기간은 금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이며 당구 볼링 댄스스포츠 킥복싱 무에이 등 재미있고 독특한 9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며 4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직위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 진행과 대회의 운영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고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위원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는 1총장 2차장 8본부로 운영 중이고 직원의 정원은 370명입니다.

대회 운영을 위한 총 예산은 5454억 원입니다.

우리 조직위는 2007년 대회 유치 이후 지금까지 경기 종목의 확정, 개·폐회식 총 감독의 위촉, 경기 일정 수립, 주관 방송사 선정 등 대회 헌장과 개최도시계약서에 의한 일정에 따라 대회를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내년까지 개·폐회식 프로그램 제작, 성화 봉송 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경기용 기구 준비, 경기 운영위원 선발 등 대회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4페이지의 대회 시설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은 49개소, 선수 훈련시설은 51개소이며 18개의 경기장은 서울 고양 부천 등 9개 협력도시의 지원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수촌 및 미디어촌은 현재 건설 중인 보금자리주택 3000여 세대를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을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입니다.

내년은 인천아시안게임의 개최연도로 대회 준비를 최종 마무리하고 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내년에 예정된 정부보조금 1008억 원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대회 시설 주경기장 건설비 국비 지원 건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주경기장 건설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800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만 대회 지원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조세 감면 건의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제대회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케팅 부담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지 않아 주최기구인 OCA와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조직위에서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각별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부장관도 지내셨고 앞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박성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육군소장입니다.

먼저 오늘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위원장님으로 재선임되신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과 새롭게 국제경기특위 위원으로 편성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유엔에서 승인하고 IOC에서 인증하는 국제대회로서 각국의 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그 취지를 상징적으로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2011년 5월 대회 유치 이후 작년 2월에 대회 지원법 공포, 7월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10월에 지원실무위원회 개최 등 대회 준비를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조직위 규정 및 규칙 제정, 대회 상징물 개발, 대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군사종목 경기장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본 대회가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군의 위상에 걸맞게 일류 명품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제경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건의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소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은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예산 추가 편성 및 확보입니다.

총 예산사업 증액이 요망됩니다. 최초에 53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최초사업 예산 판단 시 누락한 예산이 약 302억 원 그리고 과소 편성되어서

증액이 요망되는 예산사업이 870억이 추가로 식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72억 원 정도가 증액이 요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위에서는 기재부에 이 사항을 건의해서 정확한 총 사업비 판단을 위해 기재부에서 용역사업으로 KDI의 주관하에 간이타당성 재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적정예산이 판단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비 미출연에 따라서 정상적인 재원 확보가 제한됩니다. 좌측 참고 7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등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지방비 추가부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해서 작년 10월에 지원실무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비 출연현황을 보시면 거의 0.5%에서 1.33% 정도만…… 18%에서 12% 정도만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국비예산 편성 관련 사항으로서 총사업비가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추가 반영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국비 370억 원, 지방비 약 39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문경시의 요구대로 지방비 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이러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데 이게 관계기관이, 기재부하고 안행부 그리고 문체부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는 기재부와 안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에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제한된다는 의견이었고 문체부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참고 8·9,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국제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주관 대회로서 타 대회에 지원하는 지원금 때문에 지원이 제한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14년도에 적정 국고가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지방비 출연 및 문체부의 체육진흥기금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직위의 2단계 편성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인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방부, 안행부, 경상북도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조직위 2단계 편성 요구 인원보다 감소된 인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저희들이 인력·운영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 편성마저도 줄여 버리면 저희들이 계약직을 또 추가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위에서 건의한 대로 안행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정원을 승인해 줄 것을 협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있는 선수촌 확보 문제입니다.

최초 문경시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할 때 선수촌은 민자와 LH공사에서 상주 함창 지역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을 개발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문경시에서 LH공사에서 문경지역에 공공서민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방안으로 선수촌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 건의를 받고 저희 조직위에 검토토록 하여서 조직위에서는 지원실무위원회를 작년 10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문경시의 건의대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지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총리실에 통보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하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 사안은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기 곤란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직위에서는 문경시에 다시 통보하고 문경시에다가 금년 1월 30일까지는, 최소한 1월 말까지는 선수촌 문제를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1월 31일 문경시의 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 쪽입니다.

문경시에서 최종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경과 수안보 지역의 다중숙박시설 10개소에 약 3100여 명을 분산 수용하고 두 번째는 국비로 약 40억 원을 지원해서 조립식 숙소를 지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조직위에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문경 수안보 지역의 다중숙박시설 10개소에 분산 수용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좌측 참고 12와 1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ISM 요건

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산 개최로 인한 소요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학교 기숙사를 선수촌으로 쓰는 데 불과 14일만 이렇게 가용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 2~3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제한이 되고 근본적으로 문경권에 같이 수용해야 될 김천이나 영주, 안동 지역에 들어갈 선수들에 대한, 1300여 명의 수용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두 번째인 국비 지원으로 조립식 숙소를 건립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최초부터 예산 판단에 고려하지도 않았고 문경시에서 선수촌을 해결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국제대회를 보면 좌측의 참고 1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액 민자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이 제한사항이 있어서 조직위에서는 대구와 문경시 인근 최상급 호텔이나 호텔급 숙소 또 경기종목별 개최 시·군의 최상급 숙박장소를 VIP 및 임원 숙소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선수·감독·코치를 수용하는 선수촌은 국비 지원에 의한 조립식 숙소가 건립이 불가하면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경시의 선수촌 건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의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우 위원장께서는 3시 30분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한 이후에 다시 출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리고 유진룡 장관님, 3시 20…… 언제 이석하셔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20분에……

○위원장 김재윤 3시 20분에요?

그러면 장관님께 특별히 꼭 질문해야 될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윤관석 위원님하고 최동익 위원님 아주 짤막하게 질문하고, 지금 우리 차관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박종길 차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차관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윤관석 위원님하고 최동익 위원님이 짤막하게 질문……

최동익 위원님, 그러면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최동익 위원 잠깐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이 대회 말고, 실은 이번에 2015년 5월에 열리는 세계시각장애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유치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준비하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최동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이석하신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 측 자료에 의하면 대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순수 경기장 건설비용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경기장 주변의 훼손된 부지 복구 비용이 좀 추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비용이 조금, 이미 정리돼서 올라간 건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전체 사업비가 약 316억이 증액되고 정부 지원이 약 95억 증액됐는데, 약 800억 정도의 정부예산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일부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추경 심의하실 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아시안게임하고 같이 열리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안게임만 있고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조직위가 늦게 구성되면서 잘 안 잡혀서 어려움이 있다가 총 예산은 599억으로 돼 있는데 급히 아마 조직위가 예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자원봉사자가 장애인대회 특성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추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 보고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추가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장관님,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윤관석 위원 제가 장애인 행사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장애인 조직위 측에서도 장애인들이 그냥 스포츠, 아시안게임이 스포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삶에 긍정적인 변화도 만들어 주고 또 함께 지역사회 통합력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는데 대신 그런 홍보를 잘 해 줘야 되고요, 또 그만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날에 장관님께서 선물 하나 주시는 말씀 하나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장애인들이 아시안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인천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지원 여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우리 유진룡 장관님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진룡 장관님의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하고 사무총장 두 분 다 해외출장 중이셔 가지고 박창기 기획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본부장께서는 건의사항 중심으로, 이미 유인물이 배포됐기 때문에 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창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동위원장인 정의화 국회의원님은 국회일정 등으로 그리고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차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그리고 김윤석 사무총장은 2013년 세계스포츠기자연맹의 총회 주제 발표 그리고 UNOSDP와의 사전 업무 협의일정 등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말씀을 주시면 그때 사안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들 건의사항을 요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9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해 오면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타 대회와는, 특별히 어떤 가치 중심으로 해서 남북 스포츠 교류와 남북단일팀 구성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관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 부분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반드시 2015년도에 우

리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때 남북 단일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이제 내년이면 D-1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70여 개 이상의 경기시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유일하게 우리 광주 지역에 없거나 아주 노후화돼서 신설이 불가피한 3개 경기시설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필수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2015년 U대회 추진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2014년도 국비 지원 예산이 100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까지 도와주신 또 지원해 주신 그런 관점에서 2014년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최동익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 김재윤 예, 최동익 위원님!

○최동익 위원 충주조직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조직도가 없는데 발표하시는 동안에 누가 조직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표를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신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선 부위원장님께서도 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진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충북도민과 함께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정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 3만 불 이상인 유럽과 북미 등지의 예로 볼 때 충주대회 이후에는 이 종목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23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 미디어들이 충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는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사무처 직원 66명 구성원들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93억 원입니다. 경기장 632억 원, 작년 12월에 완공하였고 361억 원의 운영비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참가국 유치목표 80개국 중에 58개국이 참가 확답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폰서 및 기탁금 확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더 확보를 해서 대회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신호 제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대회 중계 문제를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중계방송사인 MBC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스포츠인 점을 감안해서 많은 관중들이 부담 없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입장권 판매에도 저희가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막식 및 문화행사 준비입니다.

개막식은 8월 24일 토요일 19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수상무대에서 개최됩니다.

공식행사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을 모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니만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외국 관광객과 선수들을 위한

공연물도 다채롭게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홍보를 위한 TV·라디오 프로 유치입니다. D-100·50·30 등 시의성 있는 행사에 열린 음악회라든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을 통해서 대회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은 약 20%, 충북도내는 약 70%, 충주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대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역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TV·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전 국민이 우리 대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숙박입니다.

숙박시설은 23개소에 2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놓았으며 현재 23개국에서 1000명이 가예약을 했고 숙박 예약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외곽 두 곳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해서 셔틀버스로 관중을 수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수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숙박·음식 서비스가 한 치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9일부터 5일간 국제조정연맹의 마지막 실사가 있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선수단 입국부터 교통, 수송, 숙박, 음식, 경기 운영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결론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기간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미비한 점을 완벽히 보완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준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이개호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개호 사무총장께서도 건의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핵심 중심으로 짤막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 박준영 위원장께서 오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리참석한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몇몇 위원님께서 저희 F1대회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에 관심 그리고 지원을 요청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F1대회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간략히 대회 개요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총장님, F1대회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만 핵심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대회 개요, 그동안의 성과, 금년도 대회 준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10쪽, 건의 1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내년도 F1 코리아 그랑프리 국고지원 건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F1대회가 국가 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회입니다. 또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개최 비용을 대부분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작년부터 대회 운영 시스템이 그동안 민간 운영법인에서 전남도가 주관을 하는 조직위원회로 완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대다수 F1 개최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대회 운영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인 운영비가 약 68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약 30% 정도인 204억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건의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존경하는 김재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이제 표면으로 부상되었다는 것이 무척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2009년도에 대회를 유치한 이후에 작년 9월 28일 날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너무 늦게 출발되어서 대회기간이 2년도 채 안 남은 기간이지만 우리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반드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일념과 혼신의 노력으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의 패럴림픽과 평창의 스페셜올림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모두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장애인 선수들이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끈질긴 투지와 열정을 보이는 감동의 대회가 될 것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의 동기를 심어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걸어가는 멋지고 감동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이 대회를 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국격을 보여 주는 대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고 조직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저비용 고감동의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모두가 하나되는 아시아를 향해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동행길에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대폭 줄이겠습니다.

6쪽, 대회 개요만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위원장님, 건의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사실은 건의사항을 하려면 앞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윤 저희가, 그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19쪽입니다.

조직위원회의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대회 총사업비 599억 원을 1225억 원으로 증액하여 확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회 유치 당시에 추진된 예산 규모 599억 원은 2002년도 부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예산 250억 원에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단순 적용하여 추계했던 예산입니다.

부산 대회는 장애인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함께 준비를 했으며 많은 비용이 아시안게임 비용에 함께 계상되었고 경기 방식도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수기로 기록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대회 규모도 17개 종목으로 규모 면에서도 인천대회보다 적은 규모였으며 인천대회는 참가 인원도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확정 당시 사업규모 편성에

있어서도 대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기종목 담당관 운영과 선수촌 운영비, 전파매체 운영 등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반영된 예산 중에서도 대회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등 대회지원인력 관련 경비와 수송차량, 물자 및 유니폼, 개·폐회식 예산 등도 일부만 반영되어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한바 총 1361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자체 실행예산을 검토한 결과 절약하더라도 최소한 122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장애인 경기대회가 비장애인 경기대회와는 다르게 입장료나 광고 등 수익사업이 취약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애인 경기대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과 복지국가 기반형성 등 순기능을 고려하고 장애인 경기대회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 당초 예산 599억 원 대비 626억 원이 증액된 1225억 원으로 사업비가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며 그중 중앙정부 지원금 증액분 375억 원이 전액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일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서 이 대회가 반드시 저비용 고감동의 대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박종길 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의의 기대효과 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표방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화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서 내용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광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대회 조직위원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모든 국제행사 시에 우리 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위하고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권성동 위원 아니, 우리 문화를 각종 행사에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만의 특유한 문화 또 강원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조직화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동계올림픽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를 들면 강릉 지역의 오죽헌이랄지 이율곡 문화 그 부분도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알리고, 강릉 지역의 특별한 문화를 개발해서 지방과 우리 조직위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권성동 위원 차관께서 지금 정부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노태강 체육국장 나와 가지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올림픽 자체를 체육행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행사로의 성격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물론 조직위원회와 강

원도와 같이 밀접하게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올림픽 행사 예를 들자면 개막식 폐막식만 문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회 전체가 전 세계에 문화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에서—지금은 문화국과 예술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문화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위원 강원도하고 함께 논의를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매년 해외 거점지역에 국가별로 한국문화예술한마당을 개최하겠다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결과 중에 구체적인 사항이긴 한데요……

○권성동 위원 거기의 용역결과를 제가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대산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명상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문광부 예산으로 오대산 월정사에 명상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계선대회 같은 것을 매년 개최하면, 여기가 올림픽 개최도시이고 그다음에 오대산 월정사의 아주 수려한 자연풍광, 또 오대산 월정사는 오래된 문화유산이잖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세계선대회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참선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바짝 해서, 말로만 '문화' 이렇게 표방하지 말고 그 문화에 걸맞은 내용을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가 사실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조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강원도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중에 스포츠파크 지구가 있어요. 그게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선수촌처럼, 동계스포츠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강원도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권성동 위원 그래서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맨날 돈 핑계만 대고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현실적으로 지금 스포츠파크 지구에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271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입도 매입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동계올림픽만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남게 되는 유휴시설에 대한 국가 매입 부담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요.

○권성동 위원 우리가 지금 동계스포츠 시설이 부족하니까, 태릉선수촌에 동계스포츠 시설이 확실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대표선수 운영하는 범위라든지 이것은 이 스포츠파크 지구 전체 매입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대한체육회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관리비 부담을 안게 되면 다른 하계 종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하여튼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앞서 권성동 위원께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환경·평화·경제올림픽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활강경기장이 들어서는 가리왕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이것이 갈등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닌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하면서 다운힐경기장, 활강경기장 할 데는 지금 가리왕산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유치되고……

○김현 위원 제 의견은 가리왕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산림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FIS하고도 협의해서 코스도 조금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보호구역, 그다음에 슬로프를 최소화시켜서 나무가 들어가는 부분을 5000여 그루, 그리고 이 나무들을 개개별로 아주 정확히 조사해서 식생·이식 여건 또 희귀성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120여 그루는 이전하고 나머지는 슬로프로 하는 것으로 산림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이 나무에 대한 계획을 조성하는 곳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나무를 훼손하는 일을 또 산림청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사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 취지나 목표에 맞춰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접근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경기장 이동과 올림픽 관람객들의 교통 소통에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애로나 이런 사항은 없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기왕에 제출된 계획을 놓고, 최근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송계획을 다시 정밀하게 용역을 줘서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의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순환 접근 교통망 이 부분에서 조금은 변동이,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정리되면 예산심의 기간에 맞춰 저희들이 제출해서 건의 올리겠습니다.

특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 위원 F1 관련해서, 지금 계시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예.

○김현 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그렇습니다. 적자 폭이 처음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마련하고 계시나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적자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비용구조에 있어서 개최권료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을 계속해서 개최권료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또 아울러 수익구조 면에서는 결국은 마케팅인데 그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민적 관심도나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회 개최 한 달~두 달 정도에만 F1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요, 그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적자 폭이 늘어서 국민들한테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대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한다거나 해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마케팅에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진선 위원장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가지고 밤낮 없이 열정적으로 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스페셜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5년 후에 있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시설을 상당히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을 활용하면서 혹시 경기장으로 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타난 게 없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경기장 부분과 숙박시설의 양, 양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양을 더 늘리는 문제만 남아 있고, 다만 내용적으로 질적인 면에서의 편의시설, 실제 선수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각종 편의시설과 이용시설들 이것이 조금은 미흡한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주 정밀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기간 동안만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시설을 갖다 더 확보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밀히 체크해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동안에 조직위하고 강원도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제반시설 그다음에 인프라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제 그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미정으로 돼 있는 사업이나 관련 인프라 이런 것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조금조금씩 조정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비디오 파일로 냈을 때하고 조정·변경된 사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최종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건의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스타디움이라든지 IBC·MPC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또 올림픽타운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비디오 파일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돼서 대상 지원시설 여부의 문제 그다음에 지원 비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림픽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경기장 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김기선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경기장 배치와 관련돼서는 확정이 다 됐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 시내에서 이전하는 문제는 다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횡성에서 스노보드를 희망했는데 그것도 최근에 황영철 위원님하고 같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국제스키연맹(FIS)에다가 횡성군민들의 의문을 질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얻음으로써 정리가 됐고요.

원주는 전에 IOC 위원장이 와서 질의응답 과정 할 때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시장과 비대위 위원들은 100%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경기장 시설이 확정된 입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설계는 발주가 됐

습니다. 돼서 설계를 시작했고요.

다만 아이스하키1은 강릉에서 지어서 개최를 하고 원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장을 꾸려서 경기를 열고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설계하면서 좀 더 기술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또 이것은 원주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김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이 지금 이석하셔서 차후에 한 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박종길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F1이나 충주·문경 또 광주 또 인천아시안게임 또 올림픽까지 사실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 인지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관광과 연결시켜서, 인바운드 관광이라는 것 아시지요, 끌어들이는 관광?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썼던 예산을 다시 벌어들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 대회 예산들이 착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우리 강릉 또 정선·평창에서 올라오는, 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회 예산들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구걸하듯이 다니고 했는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재생산되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바탕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때 제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작년에 우리 관광이 1100만 명이 돌파가 됐는데 우리나라 관광구조가 좀 약합니다. 엔화, 위안화 또 국제정세, 북한관계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출렁이는, 고무줄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제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국제경기대회를 관광화로 브리지(bridge)시켜야 됩니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관광에 사실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광의, 또 문화의, 또 음식의, 또 지역 도시민 간에, 그래서 하나의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바운드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올림픽 예산을 보게 되니까요, 조직위원회에 1조 7600억 정도 그리고 SOC 사업이라든가 경기장에 한 2조 9700억 정도 그리고 원주하고 강릉 간의 철도가 한 4조 2000억 정도 들어서 9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9조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잘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회 17일 동안에도 충분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후에, 대회 이후에 외국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저는 성공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9조를 들여 놓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관광 또 여러 가지 축제 등등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전혀 예산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반 정도, 고양이 정도밖에 그리는 격이 되고 또 장문의 받아쓰기를 썼는데 마침표를 찍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받아쓰기가 틀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회 인프라와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인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국제경기대회가 체육 스포츠로만은 안 된다, 관광과 문화올림픽을 곁들여 가지고 그 지역을 알리고 한국의 한류가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왔던 손님들도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런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조직위 또 우리 강원도, 평창군

또 문광부 이렇게 다녀 봤습니다마는 조직위가 대회 운영과 여러 가지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광부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미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림픽특구 문제가 바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특구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올림픽배후관광도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배후도시추진단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염동열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광, 문화 또 음식 그다음에 축제 또 도시 미관 이런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배후도시추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관 임용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차관님이 돌아가셔서 꼼꼼히 챙기셔서 수일 내에 이러한 계획과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협의하셔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염동열 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것이 되지 않고는 대회를 치르나 마나한, 대회를 치러서 오히려 적자만 가져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또 주무 담당 차관이시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고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셔서 마치 작전 상황에서 지휘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림픽대회라든가 각종 7개 대회를 유치한 우리 한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오늘 이후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 작전상황실을 만들어서 진두지휘해 주시는 심정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알겠습니다.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관광특구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차관님, 경기인 출신이시기는 한데 장애인경기대회에 혹시 참관하셨거나 참여한 경우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많이 가봤고요 내일 농아인달리기대회를 뚝섬에서 합니다. 거기도 가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먼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평창 강릉, 그러면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원주로 하나 간다는 얘기지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입니다.

○최동익 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횡성에 대한 봅슬레이 경기장을 제안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리상으로 봤을 적에는 평창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원래 올림픽이라는 것은 주변의 도시들이 같이 나누어서 하면서 같은 축제로 가고 또 횡성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건축하지 않고 보완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IOC하고 우리가 유치 당시 협의된 내용이라서 장소 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최동익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적에도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추진할 수는 있다, 신청할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차관님, 그리고 아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을 보니까 거기에 IOC하고 IPC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IPC에 대한 게 지금 내용이 없는데 이 장애인올림픽도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 중순에 동계대회를 하기 때문에 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조직상으로도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한데 혹시 제3차장제도를 도입을 해서 IPC를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IPC도 철저히 우리가 성공해야 되니까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도상으로는 IPC

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직원 하나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확인하셔 가지고 3차장제를 도입하셔 가지고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차츰 그 조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시켜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리고 아까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아시아경기대회도 같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이라든가 봉사자라든가 경기 진행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조직 간에 연동이 되면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직이 2개가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조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조직위가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문화부 차원에서 두 조직위를 좀 불러 모아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부 차원에서 조정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원칙적으로 OCA가 이 문제를 반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김성일 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장께서 분명히 아시안게임조직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APC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원해도 AG에서 제대로 응답을 안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부 차원에서 그런 서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최동익 위원 그리고 충주조정경기위원회, 어느 분이 대표이시지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충북 부지사입니다.

○최동익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충주조정경기에 장애인조정경기가 같이 열린다는 내용을 전혀 들어 본 적도 없고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 조직도상으로도 전혀 내용이 없고 보고상으로도 여태까지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같이 동시에 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거기 편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도 해야 되고 장애인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도 다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엄청 많은데 한 번도 발언하신 적도 없고 조직도라든가 어디를 봐도 장애인 관련된 조정경기를 한다는 내용도 지금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다못해 수송도 지금 일반 수송하고 장애인 특장차하고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장애인 조정경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보강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제가 잘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조직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조직 위원님들 중에 장애인 조정 담당 위원님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맡아서 서로 조직 직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익 위원 그분이 상근하세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상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요 자문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조직도하고 계획서하고 다 살펴봐도 장애인 조정경기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알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정말 기대했던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느

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것은 우리 국가의 위상과 지역 발전 그리고 세계적인 홍보 또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장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부분 보니까 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국비가 부족하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건의를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여기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국내 개최 국제대회는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국제경기대회가 크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법령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특히 보니까 내년도에 인천에서 하는 장애인경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고요, 인프라 확충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우리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계종목 중에서도 스키나 빙상 또 아이스하키 등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빙상으로서는 상당히 세계적인 진입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프라를 구축을 잘하고 또 경기를 이렇게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경기 종목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자료를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특히 경기종목의 불균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빙상이나 스키는 상당히 지금 꿈나무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이외 종목에는 꿈나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선수조차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빙상대표선수 선발 결과를 보면 주로 서울·경기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에서는 선수들의 저변 확대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도 그렇고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런 지방에 관련된, 지역적인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올림픽 7개 종목 중에 아직은 빙상 쪽만 성과가 나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도,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나 컬링 쪽에도 지금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요, 2018년 대비해서 전 종목에 연령대에 맞는 전 꿈나무 선수들을 벌써 선발해서 훈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전 종목에서 골고루 선수들이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영희 위원 어떤 이런 단기적인 계획보다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종목의 금메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예를 들면 빙상 관련해서는 실업팀도 지금 16개 시도 중에 5개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도 실업팀을 운영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제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석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죄송합니다.

○이한성 위원 운영비가 증액되고 시설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서 고충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숙소도 지금 상당히 난관에 봉착돼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외부에 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도에서 협조를 하나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장님께서도 힘들어 하

고 계시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지요? '도에서 21% 부담하셔야 됩니다' 보고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지요? 그 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없었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위원님, 작년도부터 꾸준히……

○이한성 위원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는 물론 하셨지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예, 제가 두 번 도지사님 뵈었고요.

○이한성 위원 그것은 그 뒤의 얘기이고 이것은 유치할 단계에서…… 이것이 벌써 한참 됐고 결정된 것은 2011년 5월이고, 그 전에 의향서를 낼 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모르시지요? 2010년 정도 무렵에 제출했는데 그 무렵에 도에다 '체육대회를 문경에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부대도 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대회를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한 21% 듭니다. 지사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모르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사무차장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한성 위원 아무 절차가 없었어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그런 절차를 전임 시장께서 밟지를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오후에 도당 당정협의회를 했을 때…… 언론도 다 와 있고 그래서 다 공개된 얘기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평창은 워낙 큰 대회니까 조직위원장님이 김진선 지사님 출신이고, 인천아시아게임은 체육부장관님 출신이고 그리고 포뮬러원은 박준영 지사님이고, 유니버시아드는 정의화 전 부의장님과 강운태 광주시장님이고 이래서 그 공개된 석상에서 조직위원장이 너무 계급사회 바깥의, 민간의 얘기를 전달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음에 곧 인사이동이 될 테니까 위임하시면서 퇴역하신 국방부장관 출신이나 계급에 연연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좀 된다, 오늘 국회에 오셨으니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을요. 이게 공개된 석상에서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예,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예, 보고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연결하시니까, 연결하시면서 후임자는 아무래도 계급조직이니까 '너무 민간에서 원하는 걸 제대로 보고를 못 한다' 이런 인식을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해 가지고…… '국방부차관 출신이나 이렇게 계급에, 인사에 연연하지 않는 분으로 하면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그때 방송사에서 그대로 중계는 아니지만 녹화를 다 했던 내용이니까 전달을 부득이하게 제가 합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대회의 상징물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문경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그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는데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 용역사업이 종결된 다음에 '경북 문경'이라는 글씨를 넣어 달라는 건의가 왔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저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엠블럼 문제는 전혀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본부로 보내는가 봐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시민지원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엠블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한성 위원 문경이 빠졌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글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한성 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요. 우리도 지금 글씨에 대한 얘기지, 엠블럼 삼족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북 문경'이 빠졌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다시 의견수렴을

각 개최 시군하고……

○이한성 위원 그것은 지금 평창도 강릉하고 정선하고 같이 가지만 이게 평창입니다. 그리고 법률도 지금 경북 문경으로 돼 있고 사실상 참여하는 6개 기초단체는 그냥 협조하는 거지, 그 주최도시에 대한 심사도 문경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것을 자꾸 엉뚱하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도 회장이 개최도시 문경을 얘기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 시민위원회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문경시민지원위원회에서 수십억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빠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성 위원 하세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뭐냐면 저희들이 유치할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5 KOREA'가 시즘(CISM)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경북 문경에 대한 글씨 문제는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엠블럼 자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명칭에 대한 것은 그때 '2015 KOREA'로 돼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그저 어떤 글자를 쓰고 하는 획수나 자체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KOREA'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예산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명칭이라고 그러면, 물론 국고도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지만 명칭을 '경북 문경'으로 넣으면, '문경'만은 넣을 수 없을 것 같고 '경북 문경'을 넣으면 지방비를 좀 출연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지원은 진짜 잘 안 해 주시면서 명칭은 자꾸 달라 그런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니까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군인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각별한 존경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유진룡 장관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박종길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관련해서 안행부 2차관한테는 질의했는데 막상 문화부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요 비율조정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쪽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 어떻게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에리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수에 지원하던 금액 정도는 최소한도 저희한테 돌려 가지고 70 대 30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고 저희는 그 이상으로 지금 80 대 2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준비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주경기장 건설 국비 추가지원이 올라온 상태인데 얼핏 봐서는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또 추가로 올라왔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동안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작년도에 일부 배정이 돼서 이게 내년도에 800억 원만 되면 적어도 일반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인 3분의 1 규모가 됩니다. 3분의 2 이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800억 원은 주셔야 국비 지원 3분의 1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윤관석 위원 2002년에 부산아시안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현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2013년 현재까지 국비지원 비율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현재까지는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4.6%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14.6%요.

○윤관석 위원 지금 지원률도 중요하지만 또 지원시기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고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이번 예산국회에서 꼭 좀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예, 그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나 이런 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가 늦게 구성됐지요, 작년 9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거의 없다가 61억인가요, 그렇지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예.

○윤관석 위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총 사업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급하게 잡다 보니까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599억을 산정할 때는 그 당시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50억 원에 대한 물가상승률만 계상을 해서 정해 놨었고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치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돈으로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을 때는 그게 대회 운영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왜 그게 빠졌던 거지요? 그러면 준비 부족인가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아마 처음에 유치신청을 낼 때 대략적인 예산을 넣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부산대회 할 때는 조직위가 하나였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 규모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중앙부처를 납득시키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역 결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바라고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그냥 아시안게임으로 그치면 안 되고 수많은 장애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니까 그분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전부 파악해 본 결과 그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국제대회 유치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국가도 하는데 조직위원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막상 직책을 맡고 보니까 하셔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인천조직위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김영수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올림픽 하면 환경 그리고 교통 그리고 경기력입니다. 사실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경기장 근처의 오염에 관계되는 시설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녹지 방어막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듣고 싶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 문제는 개최도시가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시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항상 우리나라가 모든 국제대회를 참으로 멋지게 잘 치러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국가입니다. 잘 하실 걸로 믿는데 특별히 환경에 관계되는 것은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리고 교통 문제, 경인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되고 그래서 사실 선수들의 수송 문제가, 경기시간에 맞춰서 혹은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고 언제까지 도핑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그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경인고속도로가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되고 정체구간인데 그런 해소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지금 수송 분야에 대해서도 어차피 시의 경찰과 시와 해서 가장 번잡하지 않은 루트도 개설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홀짝제도 시행하고 해서 그 문제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데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조직위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 문체부의 차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체육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차관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문경에 가서 사실 시설을 다 봤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서 국제공인이 되지 않은 장소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했으니까 그것이 공인될 수 있는…… 조직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합을 했을 때 훌륭한 선수들이 오겠는가? 굉장히 이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인되지 않은 경기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군인대회는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군사관계, 친화적인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을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아닙니다. 모든 기록과 경기는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은 시설의 대회 신기록, 예를 들면 양궁에서 신기록이 났을 때 그 기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있으셨는지요? 안 계시군요. 그러면 조금 후에 다시 하고요.

조직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증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셨는데 KDI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산 증액을 다 요청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대회운영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하나, 두 번째 경기시설 개·보수 두 가지인데 시설과 이런 것들은 KDI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나머지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전체 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셨는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그게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유치할 당시의 538억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회운영종합시스템 같은 경우 그게……

○이에리사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게 만약에 정당한 증액 요청이라면 그것은 사실 KDI의 어떤 타당성 검증도 필요 없겠지요. 여기서는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

꾸 조직위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해 달라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예.

○이에리사 위원 그것 무의미한 것이지요. 무의미한 것을 지금 증액을 요청하시는 건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주로 시설 개·보수에 관한 타당성 검토가……

○이에리사 위원 KDI에서 두 가지는 됩니다.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나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에리사 위원 그런데 혹시 그 부분을 검증하시면서 그것이 만약에 초반의 실수였다면 과다예산의 계획이었나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대회는 가장 콤팩트하게 정말 예산 절약하면서 효율성을 가지고 국제대회 기준에 맞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제가 문경에 갔을 때도 KDI의 타당성 검증이 나오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타당성 검증은 아마 시설 개·보수,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 아니면 안 나올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살펴보셔서……

저는 대회를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잘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실과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차관님께 여쭤 봤는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을…… 엊그저께 신문에 문경 훈련장이, 상무체육 훈련장이 국가대표 태릉 훈련장보다 더 훌륭하다, 더 좋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정말 제가 가 보고 놀란 것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은 문경 훈련장이 국제공인이 안 된다는 건 이건 동네 체육관이나 똑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계적인 공인,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 놓으셔야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두 분 계신가요? 다른 분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5분씩 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면 5분 이내에서, 3분 정도로 그쳐 주시면……

그러면 먼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노태강 국장님, 제가 국제시각장애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 외국 현지 방문도 하고 또 현지 방문단이 한국에 와서 실사도 하고 사실은 몇 천만 원을 들여 가면서 유치를 했는데요. 국제적인 관계는 어려움이 없는데 국내적인 절차나 예산 확보 같은 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부, 기획예산처 또 법률 이런 게 어려운 면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진행 상황 같은 경우 승인이 나면 대부분 문화부나 이런 쪽에서도 지원을 하던데 이게 좀 내부적으로 조직화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문화부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그래서 시각장애인올림픽 유치했다는 소식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제일 큰 고민의 중심이 뭐냐 하면 역시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국제행사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서 유치를 한 대회가 돼서, 장애인대회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장애인 행사의 특수성이라든지 장애인단체의 운영의 영세성 이런 걸 좀 해서 설득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서울시하고는 지금 기본적인 협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문화부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차관님이나 좀 신경 써 주시고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노태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서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에리사 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국군체육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이에리사 위원님 지적대로 국제공인을 받기 위한 규격을 지금 사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아예 못 하는 겁니까? 그것 알 수 있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흥기 허락해 주시면 체육부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흥기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마 저희가 최초 건립할 때 반영 자체를 경기장 시설로,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 시설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당시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거론된 바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00억 원에서 3000여 억 원으로 예산 절감이 되면서 훈련장 시설, 즉 관람석이 없는 훈련장 시설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나 축구장, 육상 트랙 이런 것들은 다 국제규격에 합당하게 맞고 관람석이 없다는, 예를 들면 체육관의 농구장이라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관람석이 구비돼 있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것도 당시에는 사실은 관람석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좀 줄어든 것 아닙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흥기 그게 최초 건립할 때 저희가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할 것을 결정하고 체육부대 문경기지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문경기지를 건설했으니 차제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열자 이런 논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기장으로서의 최초 설계는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좀 길어지는데 당초에 양세일 장군이 체육부대장 할 때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염두에 두고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좀 줄어들었다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본론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 문체부 차관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을 세계군인체육대회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대통령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3조2호에도 국내외 체육대회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못 쓰고 국제대회 승인도 없던 포뮬러원은 쓰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당초 저희 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국방부에서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국방부 주관 대회이기 때문에……

○이한성 위원 물론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절차를 안 밟았다고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지금?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그 관계 내용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다 결국은 기재부에서 편성할 텐데 잘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국방부하고 문체부하고 해 가지고 국무조정을 좀 받으세요, 이걸. 어차피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국방부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노고를,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 비슷하고 그런데, 하여튼 국무조정을 좀 받아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부담할지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예.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에리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도…… 그러면 이에리사 위원님 끝난 다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국제규격이라는 게 꼭 시설물, 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잘 아시지만 국제대

회를 하는 국제경기장에는 선수대기실, 휴게실 또 옷 갈아입는 데 또는 도핑컨트롤센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문경에 가서 속속들이 다 100% 본 건 아니지만 많은 시설을 봤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에서 '됐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했으니까 선수들이 와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인된 장소에서 공인된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국제대회를 유치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저는 그것을 강조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박성우 조직위원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국군체육부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방부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국군체육부대, 즉 상무 동계종목 우수 선수를 선발·육성하는 데 합의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런데 협의 내용에서는 선수가 모두 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에서는 33명의 선수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현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축구나 배구팀 선수들, 하계종목 선수 24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9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그건 국방부에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박성우 저희 조직위원회는 뭐하냐고요?

체육부대장이 사무총장을 겸하기 때문에 체육부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예,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시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흥기 동계종목은 '18년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19년까지 국방부와 문체부 간에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영희 위원 지금 제가 또 하나 더 지적할 게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상무부대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끝낸다 이겁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흥기 예, 현재 협의된 바는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흥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 후에 논의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의 사항은 정원을, 국군체육부대 정원은 실링이 정확히 정해진 상태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것은 체육부대장으로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끝나면 우리 군인체육대회, 세계대회는 끝나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흥기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차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체육인을 더 늘리고 선수들을 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평창대회 끝나면 다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현영희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영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상무부대가,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계적인 군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맞습니다.

○현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그건 국방부에서……

○현영희 위원 나중에 의논을 하셔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예,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같이 국방부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종길 알겠습니다.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들 중에 모처럼 국회에 오셨는데 꼭 하실 말씀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오늘 회의에서는 박혜자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조직위원회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에 저녁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마련한 저녁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일정이 없으신 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요. 위원장님들이 참석이 어려우시면 누구 대신해서라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 때문에 빨리 내려가셔야 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길 차관님—런던올림픽 주역이신데요—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지원특위는 정말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위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들추어내서 지적하는 특위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지원해 드리고 뒷받침해 드리고자 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많이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또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인천아시안게임, 각 국제경기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께서도 광고 배분율 지원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든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성동	권은희	김기선	김재윤
김현	박대동	박혜자	백재현
염동열	윤관석	이에리사	이재영
이한성	최동익	현영희	황영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박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제2차관	박종길
체육국장	노태강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옥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진선
사무총장	문동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영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김성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창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성우
사무총장	윤홍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신진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개호